

3. 삶을 계획하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어떤 부분에 순종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순종 리스트를 만들어봅시다.

- ★ _____
- ★ _____
- ★ _____
- ★ _____


4.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가정의 방향키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떠나야 할 때와 머물러 있을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하가다

- ① 반드시 소리내어 합니다. ② 매일 반복합니다.
- ③ 집중해서 합니다. ④ 믿음으로 합니다.
- ⑤ 단순하게 합니다.

(여러 구절보다는 한 구절을, 암송보다는 3천 번 읊조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3]

<가정예배 순서지>
날짜: 2월 6일

순종의 유익

◆ 모임 순서

- 마음열기 : 지난주를 돌아보며 나누기
- 찬 양 : 찬송 545장
- 성경읽기 : 창 12:1-9 (구약 14면)
- 말씀나눔 : 순종의 유익
- 삶에적용 : 그러면 나는?
- 기 도 : 합심기도
- 주기도문



0. 본문 배경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사람이 한곳에 정착하여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가진 짐을 모두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직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벨엘 동쪽의 산간 지방으로 옮겨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람은 또 길을 떠나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함께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말씀 관찰

1)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2절)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람의 나이는 75세로 고향을 떠날 나이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의 삶의 기반은 전부 고향에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평생 일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순종하여 과감하게 고향을 떠납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 인생이 됩니다.

2)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3절).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과 사용처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2. 말씀 적용

1)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상하지 못한 좋은 기회가 생긴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순종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